

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년 4월 28일 주일

[(백) 부활 제 2 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이민의 날)]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아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교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현 요한•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 893-4569, ☎ (302) 893-8002	

**** 오늘의 전례 ****

[입당송] 1 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대영광송>

<또는>

4 에즈 2,36-37

너희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라. 하늘 나라로 너희를 부르신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알렐루야.<대영광송>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12-16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 ㄱㄴ(◎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9-11 ㄴ.12-13.17-19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36	220	165, 161	135

믿음

Professor: You are a Christian, aren't you, son?
교수: 자네는 크리스찬이지?

Student : Yes, sir.
학생: 네, 교수님.

Prof: So you believe in God?
교수: 그래, 자네는 신을 믿는가?

Student : Absolutely, sir.
학생: 물론입니다, 교수님.

Prof: Is God good?
교수: 신은 선한 가?

Student : Sure.
학생: 그럼요.

Prof: Is God all-powerful?
교수: 신은 전능한 가?

Student : Yes.
학생: 네.

Prof: My brother died of cancer even though he
prayed to God to heal him. Most of us would at-
tempt to help others who are ill. But God didn't. How
is this God good then? Hmm?

교수: 내 동생은 신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암으로
죽었네. 대개의 사람들은 누군가 아플 때 도와주려 하
지. 하지만 신은 그러지 않았네. 이런데도 신이 선한
가? 음?

(Student is silent.)
(학생은 침묵한다.)

Prof: You can't answer, can you? Let's start again,
young fella. Is God good?
교수: 대답을 못하는군. 그럼 다시 묻지, 젊은이. 신은
선한 가?

Student : Yes.
학생: 네.

Prof: Is Satan good?
교수: 그럼 사탄은 선한 가?

Student : No.
학생: 아닙니다.

Prof: Where does Satan come from?

교수: 사탄은 어디서 태어났지?

Student : From...God...
학생: ... 하느님에게서 ... 부터지요..

(하느님은 루시퍼라는 천사를 만드셨다, 후에 타락하여
사탄이된..)

Prof: That's right. Tell me son, is there evil in this
world?

교수: 그렇다네. 그러면 말해보게, 세상에 악이 있는
가?

Student : Yes.
학생: 네.

Prof: Evil is everywhere, isn't it? And God did make
everything. Correct?

교수: 악은 어디에나 있지, 그렇지 아니한가? 그리고
신은 모든것을 만들었지. 맞는가?

Student : Yes.
학생: 네.

Prof: So who created evil?
교수: 그렇다면 악은 누가 만들었는가?

(Student does not answer.)
(학생은 대답하지 않는다.)

Prof: Is there sickness? Immorality? Hatred? Ugli-
ness? All these terrible things exist in the world, don't
they?

교수: 세상에는 아픔, 부도덕, 추함 등의 추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그렇지?

Student : Yes, sir.
학생: 그렇습니다, 교수님.

Prof: So, who created them?
교수: 그렇다면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나?

(Student has no answer.)
(학생은 대답하지 않는다.)

Prof: Science says you have 5 senses you use to
identify and observe the world around you. Tell me,
son...have you everseen God?

교수: 과학은 사람이 세상은 인지하는데 5가지 감각을
사용한다고 하지. 그렇다면 대답해보게 젊은이, 신을
본적이 있는가?

Student : No, sir.

학생: 못봤습니다, 교수님.

Prof: Tell us if you have ever heard your God?

교수: 그렇다면 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Student : No , sir.

학생: 아니오, 교수님.

Prof: Have you ever felt your God, tasted your God, smelt your God? Have you ever had any sensory perception of God for that matter?

교수: 그렇다면 신을 느끼거나, 맛보거나, 냄새맡은 적도 없는가? 신을 어떠한 감각으로도 인지한 적이 있는가?

Student : No, sir. I'm afraid I haven't.

학생: 아니오, 없습니다. 교수님.

Prof: Yet you still believe in Him?

교수: 그런데도 아직 신을 믿나?

Student : Yes.

학생: 네.

Prof: According to empirical, testable, demonstrable protocol, science says your GOD doesn't exist. What do you say to that, son?

교수: 과학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으로 신이 없다고 말하네. 자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Student : Nothing. I only have my faith.

학생: 저는 단지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Prof: Yes. Faith. And that is the problem science has.

교수: 그래, 믿음. 그게 과학이 가지지 못한 것이지.

Student : Professor, is there such a thing as heat?

학생: 교수님, 세상에 열이란 것이 있습니까?

Prof: Yes.

교수: 물론이지.

Student : And is there such a thing as cold?

학생: 그러면 차가움이란 것도 있겠지요?

Prof: Yes.

교수: 그렇다네.

Student : No sir. There isn't.

학생: 아닙니다 교수님. 그런것은 없지요.

(The lecture theatre comes very quiet with this turn of events.)

(강의실은 이 반전에 순간 적막이 흘렀다)

Student : Sir, you can have lots of heat, even more heat, superheat, mega heat, white heat, a little heat or no heat. But we don't have anything called cold. We can hit 458 degrees below zero which is no heat, but we can't go any further after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cold. Cold is only a word we use to describe the absence of heat. We cannot measure cold. Heat is energy. Cold is not the opposite of heat, sir, just the absence of it.

학생: 교수님, 많은 열, 더 많은 열, 초열, 백열, 아니면 아주 적은 열이나 열의 부재는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움이란 것은 없지요. 영하 273도의 열의 부재 상태로 만들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 만들 수는 없지요. 차가움이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가움이란 단어는 단지 열의 부재를 나타낼 뿐이지 그것을 계량할 수는 없지요. 열은 에너지이지만, 차가움은 열의 반대가 아닙니다 교수님. 그저 열의 부재일 뿐이지요.

(There is pin-drop silence in the lecture theatre.)

(강의실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Student : What about darkness, Professor? Is there such a thing as darkness?

학생: 그렇다면 어둠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둠이란 것이 존재하나요?

Prof: Yes. What is night if there isn't darkness?

교수: 그렇지. 어둠이 없다면 밤이 도대체 왜 오는가?

Student : You're wrong again, sir. Darkness is the absence of something. You can have low light, normal light, bright light, flashing light....But if you have no light constantly, you have nothing and it's called darkness, isn't it? In reality, darkness isn't. If it were, you would be able to make darkness darker, wouldn't you?

학생: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어둠 역시 무엇인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지요. 아주 적은 빛, 보통 빛, 밝은 빛, 눈부신 빛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무 빛도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둠이란 것은 없지요. 만약 있다면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수 있겠지요, 그럴수 있나요?

Prof: So what is the point you are making, young man?

교수: 그래, 요점이 뭔가, 젊은이?

Student : Sir, my point is your philosophical premise is flawed.

학생: 교수님, 제 요점은 교수님이 잘못된 전제를 내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Prof: Flawed? Can you explain how?

교수: 잘못되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겠나?

Student : Sir, you are working on the premise of duality. You argue there is life and then there is death, a good God and a bad God. You are viewing the concept of God as something finite, something we can measure.

학생: 교수님, 교수님은 이분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선한 신이 있으면 악한 신이 있다는 논지이지요. 교수님은 하느님을 유한한, 우리가 측정 가능한 분이라 보고 계십니다.

Sir, science can't even explain a thought. It uses electricity and magnetism, but has never seen, much less fully understood either one. To view death as the opposite of life is to be ignorant of the fact that death cannot exist as a substantive thing. Death is not the opposite of life: just the absence of it. Now tell me, Professor. Do you teach your students that they evolved from a monkey?

교수님, 과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조차 설명을 못합니다. 전기와 자기를 말하지만, 볼수는 없지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건 물론이구요. 죽음을 생명의 반대로 보는건 죽음이란 것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무지해서 그런겁니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아니라 단지 생명의 부재일 뿐이지요. 교수님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십니까?

Prof: If you are referring to the natural evolutionary process, yes, of course, I do.

교수: 자연 진화 과정을 말하는거라면 그렇다네.

Student : Have you ever observed evolution with your own eyes, sir?

학생: 그렇다면, 진화의 과정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교수님?

(The Professor shakes his head with a smile, beginning to realize where the argument is going.)

(교수는 논리가 성립되어감을 보고 미소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Student : Since no one has ever observed the process of evolution at work and cannot even prove that this process is an on-going endeavour, are you

not teaching your opinion, sir? Are you not a scientist but a preacher?

학생: 아무도 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못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증명하지도 못했으니 교수님은 개인의 의견을 가르치시는 거겠군요, 교수님. 마치 과학자가 아닌 연설가 처럼요.

(The class is in uproar.)

(강의실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Student : Is there anyone in the class who has ever seen the Professor's brain?

학생: 이 강의실에 교수님의 뇌를 본 사람이 있나요?

(The class breaks out into laughter.)

(강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Student : Is there anyone here who has ever heard the Professor's brain, felt it, touched or smelt it..? No one appears to have done so. So,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rules of empirical, testable, demonstrable protocol, science says that you have no brain, sir. With all due respect, sir, how do we then trust your lectures, sir? (The room is silent. The professor stares at the student, his face unfathomable.)

학생: 여기에 교수님의 뇌를 듣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냄새맡은 적이 있는분 계십니까? ...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것 같군요. 그러면 과학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으로 교수님의 뇌가 없다고 말하는군요. 그렇다면 교수님의 강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강의실은 고요했다. 교수는 심오한 표정으로 학생을 응시했다.)

Prof: I guess you'll have to take them on faith, son.

교수: 사실을 믿는 수 밖에 없겠군, 젊은이.

Student : That is it sir.. The link between man & God is FAITH. That is all that keeps things moving & alive.

학생: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 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것을 움직이고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월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오늘 (4월28일)은 ‘부활 제2주일’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 오늘 (4월28일) 가족 전례 및 친교봉사 가정은 김용상 가정이고, 미사시작전 이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1단을 바칩니다.

미사후 김용상 가정에서 준비하는 다과친교가 있습니다. 미사후 가족친교는 날씨가 허락하면 성당공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야외 연합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를 위한 특전 미사: 일시: 5 월 5 일 (일요일), 오전 7 시 30 분 장소: 교육관

■ “체리 꽃 필라...월밍턴에서” 4 개 본당 야외 연합미사

일시: 5 월 5 일 (일요일), 오전 11 시

장소: Fort Washington State Park, 44 W. Mill Road, Flourtown, PA 19031

집결시간/장소: 8 시 30 분, Delcastle Park 주차장

이동수단: 버스 대절 신청비: 도네이션

점심준비: 각 가정에서 도시락 준비

행사 일정:

11 시 - 12 시	야외 미사
12 시 - 12 시 20 분	행사진행요원 및 구역장 모임
12 시 - 1 시 30 분	점심 식사
1 시 30 분 - 3 시 30 분	개회식 및 운동회
3 시 30 분 - 4 시	시상식 및 기념품 배분, 청소

■ 평일미사: 신부님께서 2019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컨퍼런스및 총회 참석으로 5월 8일 (수요일), 9일(목요일) 평일미사 없습니다.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순번

가정별로 2주간 미사전 후에 간단한 전례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가정 전례봉사 담당 (독서자, 복사) 명단은 해당 구역장님과 상의 하셔서 전례분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봉사	봉사가정	전례교육
4월 28일	김용상 가정	4월 21일 미사후, 4월 28일 미사전
5월12일	김정일 가정	5월 5일 미사후, 5월 12일 미사전
5월19일	김택수 가정	5월 12일 미사후, 5월 19일 미사전
5월26일	나희성 가정	5월 19일 미사후, 5월 26일 미사전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St. Paul's 성당 청소

날짜	구역
4월28일	1구역
5월11일	2구역
5월25일	3구역

■ 아재 아재 기도하제: 중년 남성들의 기도모임

날짜/시간: 5월 17일 금요일/오후 7:30 장소: 교육관 준비물: 가톨릭 기도서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김비오
생미사	김나영 줄리안나, 박건 알로이시오, 박민지 프란체스카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4/20 부활성야 헌금 \$504 (부활감사헌금 포함), 4/21 부활절 헌금 \$1,819 (부활감사헌금 포함)

교무금: 김정일 4월, 리양희 4월, 이덕수 7,8,9월, 이행복 4월, 조원준 4월

야외미사 감사헌금: 마르타회 \$200, 1구역 \$200,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100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현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사 전 려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예물봉헌	복사	장소/친교
4 월 28 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김승희	김중영.	김용상	조슬기. 한에바	김중영. 김용상	김용상 가정
5 월 5 일	부활 제 3 주일 (생명 주일) 야외미사						
5 월 12 일	부활 제 4 주일	박상진	김주현.	김태현	강선유. 이재원	김정일. 오진희	김정일 가정
5 월 19 일	부활 제 5 주일	윤성숙	김택수.	김안젤라	김혜민. 김세현	김택수. 김안젤라	김택수 가정
5 월 26 일	부활 제 6 주일 (청소년 주일)	김진숙	김신희 .	오영애	이창민. 한베다	오영애. 김신희	나희성 가정